

## 인터넷 이용자의 여론 지각과 의견 표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비교

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이 연구는 여론 지각이 의견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비교한 연구이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달리 관계로부터의 고립이 개인에게 가져다줄 위험이 미미하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은 자신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의견표현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보다 의견표현 수준이 낮은 소수지각자라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것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예측했다. 분석결과 이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 아니라 여론 지각과 관련하여 의견표현의 적극성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여론의 향방을 비교하는데 성공하느냐 여부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현실공간에서도 소수 지각자는 최소한 비교에 실패한 사람들 즉, 의견과 지각 차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지각과 소수지각이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공간에서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어떤 공간이든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 다만 현실공간에서는 이에 더해 성, 진보보수성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온라인 대화 빈도와 같은 특성이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키워드: 여론지각, 의견표현, 사이버공간

---

\* hancon@pknu.ac.kr

## 1. 문제제기

여론에 관한 지각을 개인의 의견 표현에 결정적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침묵의 와선이론은 그 원인을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는다. 노엘노이만(1994)은, 모든 사회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로부터 이탈하는 개인들에게 고립을 위협하며, 이탈한 개인들은 실제로 고립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립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의견이고 어떤 것이 고립을 이끄는 의견인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그 관찰의 결과를 의견 표현 행위에 반영한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녀의 주장처럼 여론 환경에서 나타난 의견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의견 표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Mutz, 1998, p.235).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묵의 와선이론이 주장하는 여론 지각의 영향력은 상황, 이슈, 그리고 집단 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실 이슈나 집단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노엘노이만(1983)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녀는, 침묵의 와선이론은 주로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 이슈에 적용되며, 다른 집단에 비해 젊은 남자 집단,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제프리 등(Jeffres, Neuendorf, & Akin, 1999)은 의견이 표현되는 상황 혹은 맥락(context)에 따라서도 여론 지각의 영향력이 다름을 지적한다. 영향력이 달라지는 주요 원인은 그 맥락에 따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위협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Hayes 등의 연구자들(Hayes, Shanahan, Glynn, 2001)은, 기존 연구들에서 여론 지각과 의견표현 간에 약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 압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가상의 상황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가상의 상황은 사실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 압력의 강도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분석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인 자신이 소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과소평

가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여론 지각과 의견표현과의 관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인터넷에서의 의견표현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위협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여론 지각의 영향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맥락을 제공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야하는 현실공간과 달리 사이버공간에서는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드러내다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드러낸 상태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이와 같은 익명성이 순응 혹은 동조의 사회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그 결과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윤영철(1998)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참여의 개방성, 의견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참여자들간의 상호이해와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은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 혹은 맥락이 다르다. 그렇다면 여론 지각이 사람들의 의견표현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두 공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두 공간이 제공하는 상황 혹은 맥락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현실공간에서는 의견표현을 자제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두 공간 모두에서 다수 지각자보다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가? 또한 여론 지각과 더불어 침묵의 외선이론에서 현실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영향 요인들로 제시해왔던 것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행위를 설명하는데에도 여전히 유용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여전히 주저하는가? 아니면 현실공간과 달리 적극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적극성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론 분위기가 지각이 실제로 현실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 표현 행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두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 표현의 적극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여론 지각 요인의 예측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침묵의 와선이론에 의하면, 현실에서의 의견표현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독자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서, 일종의 동조 표현 행위이다. 동조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신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노엘노이만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경제적으로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여론 세계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은 그와 같이 행동하는데 들어야 하는 비용이 주위사람들로부터 고립됨에 따라 감수해야할 위험들, 구체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선의를 잃고, 거부당하거나 경멸당하는 데 따르는 비용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Noelle-Neumann, 1983, p.41). 여기서 주위 사람들이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로 대면적 일차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자신의 구성원이 집단의 규범 혹은 집단내 다수 의견에 동조할 경우 보상하는 한편,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과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Mutz, 1998, p.256).

사실 현실 세계에서 대면적 일차집단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해 정보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의 고립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삶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현실세계

에서는 그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절의 경우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평판이 따르며, 단절을 지속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관규, 2002, p.101).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처럼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관계도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의 대면적 상호 교류를 축적해야 하는 등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고립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사회가 혹은 모든 상황이 소수 의견 표현에 대해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나 혹은 고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이 그 위협의 정도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침묵의 와선 연구 영역에서 최근에 행해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 비교 연구나 개인적 성향의 영향력에 대한 정교화 시도 등(Scheufele & Evland Jr., 2001; Willnat et al., 2002)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침묵의 와선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닌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했던 Scheufele와 Moy(2001) 역시 향후의 연구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 가정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문화권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이 형성하는 사이버공간은 고립의 위협 수준 차이가 의견표현 행위에 가져오는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침묵의 와선이 형성되는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연구영역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현실공간만큼 고립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차이가 여론 분위기 지각의 영향력 감소, 즉 침묵의 와선이 형성되지 않는 결과로 실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공간에서 의견 표현을 자제시키는 힘으로 여겨지는 고립이라는 위협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위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듣는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지 고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혹은 고립을 시키는 사람들 모두 뚜렷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현실세계의 그것과 달리 시작과 단절, 그리고 대체가 용이하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실세계에서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로가 사회적 배경, 개인적 성격 등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주고받는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관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적 상황에서 시작해서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으며, 익명의 상대에 대한 단절 역시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면 쉽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제재가 거의 뒤따르지 않는다(김관규, 2002, p. 101).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간에서는 관계에서 고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현실의 정체성이나 삶의 터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아이디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이버공간 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기존 관계에서 형성한 평판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대상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가상세계의 관계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그것처럼 고립이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립이 현실공간만큼 강력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혹은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성으로 인해 고립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립된다 하더라도 금방 새로운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세계인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처럼 의견을 표현할 때 사회적 규범과 예절을 고려해야 할 이유나 의견의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이유 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화나 혹은 토론 참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참여의 불균형 형성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경험적 연구들(김유정, 1998; Sproull & Kiesler, 1986)이 입증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보다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 2)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예측 요인들

현실공간보다 의견표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려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사이버공간의 토론에서도 현실에서처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과 조용히 관찰만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Ha & James, 1998).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예측하는데 있어 현실 공간을 대상으로 침묵의 와선 이론이 제시했던 요인들은 여전히 유용한가?

### (1) 여론 분위기 지각

침묵의 와선 이론 연구들은 그 동안 현실 공간에서 의견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왔으며, 그 요인들 중 핵심은 여론 분위기 지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요인의 영향력 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현실공간에서의 의견표현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글린 등(Glynn et al., 1997) 역시 여론 분위기 지각이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긴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이들의 결론도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 소수 의견 표현을 자제시키는 힘으로 가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이버공간에서는 거의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익명의 상황에서 관계의 구속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사이버공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립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이 형성하는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뮤츠(1998)는

익명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견해에 동조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한다면, 여론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게 지각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지각한 사람들 간에 의견 표현 의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공간에는 적용될 수 있어도 사이버공간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가 공개적 의견 표현 의지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 지각의 대상이 현실공간의 여론 분위기인가 혹은 사이버공간의 여론 분위기인가와 무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사회보편적인 매체라 할 수 없다. 인터넷 이용자 집단은 젊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 그리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여론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특정 의견으로의 편중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다수와 소수가 규모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은 소수 의견들에 대해 현실세계에서 지켜지는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무차별적인 비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현실공간보다 더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소수 의견에 대한 비난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버공간의 이와 같은 환경은, 표면적으로 공간 내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들을 침묵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 내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 역시 현실공간의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 내 의견 표현 의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이버공간 내에서는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이 초래할 고립이란 일상생활의 삶에 그리 위협적인 수준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 지각되는 여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편중되게 지각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역시



쉽게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사이버 공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환경은 소수 의견을 지닌 사람도 의견 표현에 적극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다. 동조자의 발견 그 자체가 의견 표현 의지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김유경, 2001, p.50).

이처럼 현실의 여론에 대해서든 혹은 사이버공간 내 여론에 대해서든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느냐 혹은 소수 의견으로 지각하느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공간에서 여론 지각과 관련하여 의견표현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그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여론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자체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공간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의 침묵의 와선 이론 연구들은 여론 분위기 지각과 의견 표현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자신의 의견과 여론 분위기 비교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관심의 초점을 비교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과 소수 의견으로 지각한 사람들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특정 이슈에 관해 여론이 형성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결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론의 분위기에 대한 지각 자체에 실패한다. 사실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하는지 혹은 소수에 속하는지를 알려면, 어떤 방향으로든 의견과 지각에 관한 판단들이 존재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한 관심이나 혹은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론 지각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일 가능성 역시 높다.

Willnat 등(2001)은 여론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 표현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여론 지각과 개인적 의견간의 일치성을 높은, 중간, 낮은 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조작화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은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경우이며 낮은 수준은 자신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간 수준은 개인적 의견이 뚜렷하지 않거나 여론 분위기 지각에 실패한 경우로 조작화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간 수준은 연구자들이 설정한 네 가지 가정적 상황 모두에서 의견표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주환(1999)도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 보다는 지각 여부 자체가 대인 토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여론 지각과 공개적 의견 표현간의 관계는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느냐 아니면 소수 의견으로 지각하느냐에 앞서 개인적 의견과 여론에 관해 어떤 방향으로든 판단을 내렸느냐 여부의 영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특정 이슈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그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에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개적 의견표현 의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앞서 예측한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는 소수 의견 표현을 자제시키는 힘이 약화된다면, 여론 지각과 관련하여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의견화와 지각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론 분위기 지각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지각 일치성 정도를 기준으로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이 세 집단이 의견표현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기술했던 논의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현실공간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순으로 의견표현에 있어 적극적인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 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의견표현의 적극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화와 여론 지각에 성공했느냐의 여부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상을 연구가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 인터넷 이용자들은 현실공간에서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등 세 집단간에 의견표현의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수 지각집단, 소수 지각 집단, 지각 실패 집단 순으로 의견 표현에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3>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등 세 집단간에 의견표현의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때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집단은 지각 실패 집단일 것이다. 이는 현실공간의 여론과 사이버공간의 여론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매체 이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 및 이슈 중요성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을 의견 표현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 보다 다른 요인들, 구체적으로 이슈를 중요하게 지각하는 정도, 집단 소속감 등이 의견 표현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 요인들임을 제안하고 있다 (Jeffres, 1999, p.116). 그밖에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매체 이용 요인 등은 최근의 연구 대부분이 의견 표현의 예측 요인들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이준웅, 2001; Scheufele & Eveland Jr, 2001; Willnat, Lee & Detender, 2002).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성, 연령, 교육, 정치 관심정도 등을 포함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예측력에 관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Scheufele와 Eveland Jr(2001)의 연구에서는 공개적 의견 표현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의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나는 반면, 싱가포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Willnat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의견 표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향력이

유의미하든 아니든 간에 기존 연구들이 지닌 한 가지 공통점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의견 표현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매체 이용 요인은 대중 매체 이용 변인들과 대인 매체 이용 변인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매체 이용 요인은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보 습득량, 그리고 여론 분위기 지각의 정확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이 요인의 영향력 역시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슈 중요성 지각에 관한 결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편이다. 다수의 연구들(김유경, 2001; Salmom & Kline, 1984)은 이슈 중요성 지각과 공개적 의견 표현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일반적인 공적 사안뿐만 아니라 그 이슈 자체와 여론의 향방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왔다.

이에 더해 Willnat 등(2001)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 요인도 의견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침묵의 와선 연구들은 개인적 성향에 속하는 이 요인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McCroskey와 Beatty(1998)의 주장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이 요인의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견 표현 행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표현을 주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이상의 예측 요인들은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특정 국가나 혹은 지역 사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을 토대로 제시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요인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 표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예측 요인들이며, 예측의 방향 역시 현실공간의 그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터넷 이용자 집단 자체가 기존 연구들에서 대상으로 삼은 집단들과 다른 어떤 공통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 집단은 앞서도 제시한 것처럼 인구사회학적으로 특정한 계층에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견 표현 행위에 있어서도 특정 계층의 성향을 더욱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 집단은 젊은 계층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보다 의견 표현 수준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계층에 속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역으로 그 계층에서 예외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더해 인터넷 이용자 집단은 매체 이용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집단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습득이나 여론 지각 등을 대중 매체나 대면적 토론보다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나 온라인 토론 등에 더 의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예측요인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순수하게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차이만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 집단 자체가 지니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서 제기한 여론 지각 변인과 함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의견표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공간을 대상으로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여론 지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매체 이용 요인, 이슈 중요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 요인 등,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인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현실공간에서의 의견 표현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또한 현실공간에서 유용한 요인들은 사이버공간의 의견 표현 예측에서도 여전히 유용한가? 특히 여론 지각 변인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두 공간 모두에서 유용한가 아니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연구문제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실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 표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 요인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측에서도 여전히 유용한가?

### 3. 연구방법

#### 1) 표본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인터넷 이용자 조사회사인 디지털랩의 온라인 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디지털랩의 패널은 전국 인터넷 이용자 분포를 성, 연령, 지역 차원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들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온라인 상에서 2003년 3월 마지막주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마감된 후,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 연령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2차 표집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응답자는 총 706명이다. 남성이 56.8%, 여성이 43.2%였고, 연령별로는 10대가 4.4%, 20대가 43.3%, 30대가 34.1%, 40대가 13.0%, 50대 이상이 5.1%였다. 10대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만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10대가 적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20-30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 연령 분포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 조사회사들이 발표하는 조사결과들은 대부분 18세 이하의 연령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연령별로는 여전히 젊은 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기존의 조사결과들과 비교했을 때,<sup>9)</sup>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

---

9) 2003년 3월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성, 연령 분포는 인터넷 이용자 조사회사인 코리아 클릭이 발표한 결과를 일차적으로 참조했음.

들은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변인의 측정

### (1) 분석대상 이슈와 의견 표현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이슈로 ‘호주제 폐지’를 설정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지만, 특히 올해 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여성부 장관 등이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대중 매체에서도 이에 관한 논란이 활발히 다뤄졌다. 또한 이 이슈는 침묵의 와선이 적용되는 이슈의 특성으로 노엘노이만이 지적한 도덕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견 표현은 한 개인이 타인들과의 토론 상황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써 표현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의도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 타인들과의 토론 상황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현실공간의 상황은 반사회 상황으로 정의했다. 반사회 상황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 상황처럼 단순히 사적인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 공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반사회에서는 토론 상대들이 주위 이웃들인데, 이들은 의견 표현자에게 사회적 고립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공간의 반사회 상황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위협의 힘이 미약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 상황과 비교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위협 수준이 서로 다른 상황들이 의견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견 표현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했다. 현실공간의 의견 표현은 “반사회와 같은 자리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토론이 시작된다면 귀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사이버공

간의 의견표현은” 토론 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다면 귀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측정했다. 두 항목 모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를 1로, 반드시 말할 것이다를 5로 본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 (2) 지각 일치성, 개인적 의견, 여론 지각

지각 일치성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현실공간에서의 지각 일치성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지각 일치성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모두 다수 의견으로 지각한 경우를 다수 지각이라 명하고 3점을 부여했으며, 소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소수 지각이라 명하고 2점을, 개인적 의견과 여론 지각 간의 비교에 실패하는 경우를 지각 실패로 명하고 1점을 부여하는 3점 척도로 측정했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지각 실패 집단을 제외하거나 혹은 소수 지각 집단보다 의견 표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가정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론 분위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슈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공적 문제에 관한 정보 처리 능력 등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의도 역시 의견과 지각에서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린 사람들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지각 실패 집단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지각 일치성은 개인적 의견과 여론 지각 두 변인을 가지고 측정되었다. 먼저 개인적 의견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매우 찬성을 1로, 매우 반대를 5로 보는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했다. 현실공간의 여론 지각은 “우리 국민 다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사이버공간의 여론 지각은 “네티즌 다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했으며, 두 변인 모두 응답항목은 찬성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반대할 것이다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현실공간 여론에 대한 지각일치성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각한 경우를 다수 지각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대조적인 방향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소수 지각으로, 마지막으로 개인적 의견을 정하지 못하거나 국민 다수 의견의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지각 실패로 측정했다. 사이버공간의 여론에 대한 지각일치성 역시 네티즌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과 개인적 의견을 비교하여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 (3) 이슈 중요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

이슈 중요성은 개인이 특정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했다. 응답자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5점으로 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는, Willnat 등(2001)이 정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는 의견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지니는 우려로 정의한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음 세 가지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문항간 코딩방향을 조정한 이후 합산평정하여 사용했다. “귀하께서는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거리낌없이 말씀하시는 편입니까?” “귀하께서는 평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평소 토론에 참여하는 동안 긴장감과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 세 문항의 신뢰도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통계처리에 무리는 없었다( $\alpha = .68$ ).

### (4) 매체 이용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매체 이용 요인은 크게 공적 문제에 관한 대화빈도와 뉴스 매체 이용 빈도로 측정했다. 먼저 공적 문제에 관한 대화 빈도는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각각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해 일주일에 몇 번 대화하는지로 측정했으며, 뉴스 매체 이용 빈도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뉴스 사이트를,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그리고 신문의 경우에는 종합일간지를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이용하는지로서 측정했다. 뉴스 매체 이용 빈도 요인에 포함된 변인들은 모두 0에서부터 7까지의 값을 지닌 척도로 측정됐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 연령, 학력 등 기초적인 변인들과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진보·보수 성향 변인들로 구성됐다. 정치에 관한 관심 정도는 전혀 관심없다에 1점, 매우 관심있다에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진보·보수 성향은 매우 진보적에 1점, 매우 보수적에 5점을 부여하는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 3) 통계 방법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실공간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가설 1>은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은 일원변량분석과 변량분석에서 사후분석으로 제공하는 다중비교방법을 통해 검증했다. 먼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단순히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이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했으며, 이후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세 집단 중 어떤 집단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다중비교분석은 Sidak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됐다. 동변량성에 대한 검정결과, 현실 여론에 대한 지각 일치성 세 집단이나 사이버 여론에 대한 지각 일치성 세 집단 모두 동변량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모델들 모두 가상 외생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부터 먼저 투입하는 계층구조적 분석방법을 사용했는데, 맨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고, 다음으로 매체 이용 요인을, 그리고 세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 요인과 이슈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지각일치성 변인을 투입했다.

#### 4. 분석결과

##### 1)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개인적 의견과 여론 지각 그리고 의견 표현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55.7%였으며, 반대는 16.9%, 중립은 27.5%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다소 다른 모습을 띠었다. 현실공간에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률(35.8%)과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률(28.3%)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가상 공간에서는 두 항목의 응답률간의 차이가 매우 컸다(찬성:58.8%, 반대:13.9%). 전체적으로 현실 공간의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은 사이버공간의 그것에 비해 이질성이 높았다. 즉, 응답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실공간에서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지각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표 1> 호주제 폐지에 관한 여론 지각과 의견 표현 분포

		여론 지각	의견표현		
현실공간 (n=706)	찬성	35.8%	표현할 것	51.1%	M=3.46
	중립	35.8%	반반	31.7%	
	반대	28.3%	표현하지 않을 것	17.1%	
사이버공 간 (n=706)	찬성	58.8%	표현할 것	54.7%	M=3.52
	중립	27.3%	반반	28.9%	
	반대	13.9%	표현하지 않을 것	16.4%	

한편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표현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공간이나 사이버공간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반영하듯이 두 공간 모두 의견표현 수준의 평균은 5점 척도의 중간인 3점을 넘는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평균은 3.52로서 현실공간의 평균 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공간 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했다( $t=2.649, p<.01$ ). 따라서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보다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가설 1>은 검증되었다.

2)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지각 일치성과 의견 표현

먼저 두 공간에서 지각일치성 변인을 구성하는 세 집단, 구체적으로 다수 지각, 소수 지각, 지각 실패 집단의 의견표현 수준 차이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현실공간에서 세 집단간 의견표현 수준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59.38, p<.001$ ), 사이버공간에서도 역시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했다( $F=52.22, p<.001$ ). 사이버공간에서는 이에 더해 온라인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의 경우에도 다수지각, 소수지각, 지각

<표 2>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지각일치성에 따른 의견표현 수준 차이

지각일치성		의견표현수준			
		현실공간		사이버공간	
		평균	S.E	평균	S.E
현실 여론	다수지각(n=279)	3.87	.05	3.88	.05
	소수지각(n=89)	3.58	.11	3.79	.10
	지각실패(n=338)	3.08	.05	3.16	.05
	F값	59.376***		52.224***	
온라인 여론	다수지각(n=285)			3.85	.05
	소수지각(n=57)			3.70	.12
	지각실패(n=364)			3.06	.06
	F값			62.663***	

\*\*\*p<.001

실패 등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62.66, p<.001$ ).

그러나 변량분석결과 나타난 유의미성이 어떤 집단 쌍들에서 비롯되었는지, 특히 다수 지각과 소수 지각, 이 두 집단은 어떤 공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비교 분석결과는 두 공간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현실공간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서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사후분석 결과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수 지각 집단은 소수 지각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05$ ), 지각실패 집단과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또한 소수 지각 집단과 지각 실패 집단간 차이 역시 매우 유의미했다( $p<.001$ ). 이와 같이 현실공간에서는 <연구가설 2>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다수 지각 집단의 의견 표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소수 지각 집단이었고, 마지막으로 지각 실패 집단이 가장 낮았다. 즉, 현실공간에서는 의견화와 지각에 대한 성공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에 따라서도 의견 표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지각일치성 집단간 의견표현 평균차이 다중비교분석

	현실공간	사이버공간	
		현실 여론	사이버 여론
다수지각 - 소수지각	.29*	.09	.15
소수지각 - 지각실패	.50***	.63***	.64***
다수지각 - 지각실패	.79***	.72***	.79***

\*  $p<.05$ , \*\*\* $p<.001$

이에 반해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 여론에 대한 다수 지각 집단과 소수 지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 여론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집단은 지각 실패 집단으로서 다수 지각 집단과 소수 지각 집단 모두와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두 경우 모두  $p<.001$ ).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여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의 여론이든, 혹은 온라인의 여론이든 그에 관해 다수로 지각하느냐 혹은 소수로 지각하느냐가 의견 표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보다 <연구가설 3>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의견 표현 수준의 차이는 어떤 방향으로든 의견과 여론에 대해 판단을 했느냐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 그 자체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놓고 볼 때, 현실공간에서나 사이버공간에서나 여론 지각은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미한 변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차이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집단의 성격은 두 공간에서 다소 다르다. 현실공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다수 지각 집단과 소수 지각 집단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공간 모두에서 의견표현의 적극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집단은 의견화와 여론 지각에 실패한 지각 실패 집단이다. 이 집단은 어떤 공간에서든 다른 두 집단들보다 의견표현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소수라는 지각이 의견표현을 자제시킨다는 주장은 현실공간에만 적용가능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들은,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 여론 지각이 의견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의 근원은 다수 지각과 소수지각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과 여론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의견표현의 예측변인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비교

#### (1) 현실공간에서의 예측

이 연구의 모델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현실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을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예측에 있어 여론 지각과 다른 요인들간의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먼저 이 연구의 모델은,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현실공간에서의 의견 표현을 매우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모델은 종속변인인 의견 표현의 전체 변량 중 41.8%를 예

측했다( $p < .001$ ).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매체 이용 요인,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 지각일치성 등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 네 블록 모두 예측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네 블록 중 예측력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것은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으로 구성된 세번째 블록이었다( $\Delta R^2 = .261, p < .001$ ).

<표 4> 현실공간에서의 의견 표현에 대한 예측변인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225***	.223***	.083*	.074*
	연령	.151***	.133**	.154***	.142***
	학력	-.037	-.043	-.038	-.030
	정치 관심정도	.142***	.110**	.032	.028
	진보·보수 성향	-.151***	-.151***	-.077*	-.071*
매체 이용 요인	텔레비전		.076*	.048	.046
	신문		-.006	-.006	-.017
	뉴스사이트		.087*	.053	.036
	정치적대화(일상)		-.014	-.006	-.009
	정치적대화(온라인)		.063	.018	.034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	커뮤니케이션 우려			-.140***	-.125***
	이슈 중요성			.526***	.470***
지각일치성	현실				.201***
R2 증가분		.115***	.018*	.261***	.036***
전체		수정된 R2 = .418***			

<표>의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은 전체 변량 중 11.5%를 설명했으며( $p < .001$ ), 그 중에서 현실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예측에 대해 유의미한 기여를 한 변인들은 성, 연령, 정치관심정도, 진보·보수 성향 등이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투입되었을 때 가장 기여도가 큰 변인은 성( $\beta = .225, p < .001$ )이었으며, 나머지 변인들의 기여도도 매우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의견표현 수준이 높았으며,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중에서 성과 연령, 그리고 진보·보수성향은 다른 모든 변인들이 투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견표현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분석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와 달리 현실공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전체 여성 중에서도 개인적 의견 표현에 적극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슈가 여성들에게 특별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이슈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론의 방향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공개적으로 의견 표현하기를 주저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분석 대상 이슈가 여성의 지위 향상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편 매체 이용 요인 블록은 전체적으로 모델의 예측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다른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여도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텔레비전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시청( $p < .05$ )과 뉴스 사이트 이용( $p < .05$ ) 등 두 가지뿐이었다. 이 두 변인 역시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의견 표현 예측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투입된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은 모델의 예측력을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두 변인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슈 중요성은  $\beta$ 계수가 .526( $p < .001$ )으로서 종속변인 예측에 매우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우려를 덜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호주제 폐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실공간에서 의견 표현에 더 적극적이다.



최종적으로 지각일치성을 투입한 결과, 이 변인 역시 모델의 예측력을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의견 표현 예측에 대한 이 변인의 기여도는 매우 유의미했다( $\beta=.201, p<.001$ ). 이를 해석하면, 현실 여론이 자신의 의견과 같은 방향이라고 지각한 사람들은 대조적 방향이라고 지각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대조적 방향이라고 지각한 사람들은 지각에 실패한 사람들보다 현실 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은 이슈 중요성( $\beta=.470, p<.001$ )이었으며, 그 다음이 지각일치성( $\beta=.201, p<.001$ ), 나이( $\beta=.142, p<.001$ ), 커뮤니케이션 우려( $\beta=-.125, p<.001$ ), 성( $\beta=.074, p<.05$ ), 진보보수성향( $\beta=-.071, p<.05$ )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놓고 볼 때, 현실공간에서 지각일치성은 의견표현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공간에서 의견표현 수준은 전적으로 이 변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이슈 중요성이 더욱 결정력이 높은 변인이며, 그 외에도 나이, 커뮤니케이션 우려, 성, 진보보수성향 등 개인적 성향에 관한 다양한 변인들의 결정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측

사이버공간의 모델에는 현실공간에서 투입된 변인들에 더해 온라인 여론에 대한 지각 일치성 변인이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 표현 예측 모델 역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은 전체 변량 중 36.7%를 예측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했다. 현실공간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체 예측 변량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네 가지 요인들의 예측 기여도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투입했을 때, 전체 변량 중 8.6%를 설명했으며,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 $\beta=.200, p<.001$ )이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 $\beta=.150, p<.001$ ), 진보보수성향( $\beta=-.115, p<.01$ ), 정치관심정도( $\beta=.112, p<.01$ ) 순으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최종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변인은 나이였다. 이상의 결과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의견 표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현실 공간과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보다 의견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데, 특히 성과 진보보수 성향과 같은 특성들은 다른 변인들이 모두 투입되면 기여도의 유의미성이 사라진다.

<표 5>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예측변인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200***	.196***	.063	.040
	연령	.150***	.136**	.156***	.143***
	학력	-.070	-.072	-.068*	-.058
	정치 관심정도	.112**	.079	.007	.007
	진보·보수 성향	-.115**	-.114**	-.046	-.034
매체 이용 요인	텔레비전		.082*	.055	.054
	신문		-.008	-.021	-.022
	뉴스사이트		.066	.036	.012
	정치적대화(일상)		-.016	-.008	-.016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	정치적대화(온라인)		.105**	.063	.086*
	커뮤니케이션 우려			-.121***	.110**
지각일치성	이슈 중요성			.495***	.419***
	현실				.117**
	온라인				.126**
R2 증가분		.086***	.023**	.229***	.042***
전체		수정된 R2 = .367***			

<표>의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 p<.05, \*\*p<.01, \*\*\*p<.001

다음으로 매체 이용 요인을 투입한 결과는 현실공간의 그것과 다소 달랐다. 사이버공간에서 매체 이용 요인은 현실공간에서의 경우보다 예측력을 더 많이 증가시켰는데, 그 주요 원인은 현실공간에서 예측에 유의미한 기여

를 하지 못했던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대화 빈도 변인의 기여도( $\beta=.105$ ,  $p<.01$ )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텔레비전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시청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의 의견표현 수준 예측에서도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beta=.082$ ,  $p<.05$ ).

세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우려 및 이슈 중요성을 투입한 결과 두 변인 모두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의견 표현 예측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중요성은  $\beta$ 계수가 .495이고, 커뮤니케이션 우려는  $\beta$ 계수가 -.121로서 두 변인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역시 호주제 폐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을수록 의견표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일치성 요인을 투입한 결과, 현실 여론에 대한 지각일치성이나 온라인 여론에 대한 지각일치성 모두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 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의 기여도는 온라인 여론( $\beta=.126$ )이 현실 여론( $\beta=.117$ )보다 약간 높았다. 이처럼 지각 일치성 요인의 예측력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는 현실공간과 달리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앞선 분석에서 제시했던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은 다수 지각이나 혹은 소수 지각이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 두 집단과 지각 실패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의견과 지각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변인들을 투입할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의견 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들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슈 중요성( $\beta=.419$ ,  $p<.001$ )이었다. 그 다음이 나이( $\beta=.143$ ,  $p<.001$ ), 온라인과 현실 여론에 대한 지각일치성 변인들 순이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우려( $\beta=.110$ ,  $p<.001$ ) 역시 매우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현실공간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공간에서는 성과 진보보수성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의견표현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한 반면,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대화빈도 변인은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 5. 결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 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칭한다. 그러나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의견표현 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여론이 이와 같은 이상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상적 과정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의견 표현에서부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람들을 통제하는 힘은 고립에 대한 위협이다. 사회적 고립을 우려하는 개인들은 자신이 다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할 때와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할 때 의견표현에서 적극성의 정도를 달리 한다. 이처럼 개인으로 하여금 여론 분위기를 지각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의견표현의 적극성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기제를 통해 사회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현실세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기제가 가상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현실세계와 비교했을 때, 가상세계에서 고립이 개인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는 미미하다. 이와 같이 고립이 가져오는 위협 수준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다수 지각이나 혹은 소수 지각이나에 따라 의견표현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선택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에서는 예측했다. 분석결과 이 연구의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모두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두 공간에서 의견표현 수준을 달리하는데, 사이버공간에서 더 높은 의견표현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견표현 수준이 높아지지만, 높아지는 수준이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현실의 여론에

서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현실공간이나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공간에 따라 그 적극성의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신의 의견을 현실의 여론에서 소수 의견으로 지각한 사람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이 두 공간간에 의견표현 수준 차이가 가장 컸다. 그 결과 이들은 현실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보다 의견 표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 지각자가 소수 지각자보다 의견표현 수준이 더 높다는 주장은 사이버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여론 분위기를 자신과 일치하게 지각하느냐 아니면 대조적으로 지각하느냐 역시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의 여론이든 사이버공간의 여론이든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의견표현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여론 지각과 관련하여 의견표현 수준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다수나 소수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지각하는 것 그 자체이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여론의 향방을 관찰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이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소수 지각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접한 사람들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대안적인 정보들을 함께 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치적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도 높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수 지각자들의 의견표현 수준이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전체 분석대상자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공간 모두에서 소수 의견 피력에 따르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견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을 의미한다.

현실공간이나 사이버공간 모두 의견표현 예측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인은 이슈 중요성이었다. 또한 나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와 같은 개인적 성향 역시 의견 표현 수준을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실공간에서는 이에 더해 여성이, 그리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견표현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남성이라고 혹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서 의견표현에 덜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의견표현 수준 예측 기여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니라 평소 온라인에서 정치적 대화를 얼마나 자주하는가이다. 한편 두 공간 모두에서 여론 지각 변인은 의견표현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변인이었지만, 앞서 제시한 여론 지각 집단간 다중비교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가 의견표현 수준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에 따라 의견표현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기제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제가 현실공간에서도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의견표현 수준이 달라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서도 의견표현 수준은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여론분위기 지각은 의견표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중 하나이며, 그 영향력의 크기, 더 나아가 존재 유무는 고립이 가하는 위협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위협 수준이 미미한 사이버공간에서 의견표현은 다수 지각이나 소수 지각이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견표현을 자제함으로써 합의가 창출되는 공간이 아니다. 의견을 지니고 여론의 향방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소리를 높이는, 그래서 의견들 간의 격돌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론 역시 사이버공간 내 의견표현 맥락에 따라, 그리고 그 이슈의 성격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이슈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이버공간 내 위협수준은 모두 동일한 상태라는 가정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닌다. 먼저 이 연구의 이슈는 호주제 폐지로서 여성들에게 특히 민감한 이슈였다. 따라서 분석결과 역시 이슈의 성격에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다소 벗어났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슈들을 특성 에 따라 좀더 정교하게 유형화하고, 이슈 유형이 의견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이라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과의 차이를 가정했을 뿐, 그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또한 사이버공간 내에도 공간의 유형에 따라 익명성의 정도나 이용자들간의 관계의 성격 등이 다르다. 이는 사이버공간 내에서도 공간에 따라 동조성을 강화하는 정도 혹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 내에서도 다수 지각과 소수 지각이 의견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공간에 따라 의견표현에 관해서도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사이버공간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유형화하여 의견표현 행위를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참고문헌

- 김관규 (200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인간관계와 현실공간의 인간관계의 비교. 『한국방송학보』 16-1. 73~109.
- 김유경 (2001).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숙의: 가상공간내 정치토론이 의견의 질과 여론과정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정 (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환 (2001). 뉴스 매체의 사용과 정치에 대한 사적 대화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86~116.

- 양승찬 (1998).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이론의 연계성: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공개적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1. 109~141.
- 윤영철 (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43-1. 184~218.
- 이준웅 (2001).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제 16대 총선 예측조사 실패에 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논의, 『한국방송학보』 15-1. 199~236.
- Blumer, J. M. & D. Kavanach. (1999). The Third Age of Political Communication: Influences and Features. *Political Communication*. 16. pp.209-230.
- Bonchek, M. S. (1997). *Political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원성목 역. (1998). 『브로드캐스트에서 넷캐스트로: 인터넷과 정치정보의 흐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 L., & James, E. L., (1998). Interactivity Reexamined: A Baseline Analysis of Early Business Web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ida*, 42(4), 457~474.
- Glynn, G. J., Hayes, A. F., & Shanahan, J., (1997). Perceived Support for One's Opinion and Willingness to Speak Out. *Public Opinion Quarterly*. 61. 452~463.
- Hayes, A. F., Shanahan J., & Glynn, C. J., (2001). Willingness to Express Ones's Opinion in a Realistic Situa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Support for That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45~58.
- Jeffres, L. W., Neuendorf, K. A., & Atkin, D., (1999). Spirals of Silence: Expressing Opinions When the Climate of Opinion Is Unambiguous, *Political Communication*, 16, 115~131.
- McCroskey, J. C., & Beatty, M. J. (1998).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 14(4). pp.391-412.에서 재인용.
- Mutz, D. C. (1998). *Inter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역(2000). 『미디어 정치 효과: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 Mutz, D. C. & P. S. Martin.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97~114.
- Noelle-Neuman, E. (198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95). Public Opinion and Rationality In Glsaaer, T. L., & Salmon, C. T.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New York: Guilford, 33~54.
- Salmon, C. T., & Kline, F. G. (1985). The Spiral of Silence Ten Years Later: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In K. L. Sanders et al.(ed.)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1984.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3~30.
- Scheufele, D. A. & Moy, P.,(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1). 3~28.
- Scheufele, D. A., & Eveland Jr., W. P.,(2001).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 Sproull,, L., &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4). 391~412.

(최초 투고 2003.8.27., 최종 원고 제출 2003.10.13)

## Internet Users' Willingness to Expression and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The Comparison between Real Space and Cyber Space

Hye-Kyoung Han

Assi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of perceived public opinion on Internet users' willingness to expression in real space with in cyber space. In real space, people who perceive their opinions as minority opinion are reluctant to express theirs publicly because of fear of isolation. But cyber space is the anonymous world. So we can expect that people express their opinions freely without the fear of isolation in this space. This study's results provide the support for our expectation. In cyber space, the minority perception group has as the high willingness to expression of their opinion about the abrogation of the Korean Family Rights Raw as the majority perception group. Both of in cyber space and in real space, it is the perception failure group that makes discrepancy in the willingness to expression. This group has the lowest willingness to expression in both space. However, the other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expression in cyber space are similar to those in real space. Issue salience,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Age are the very significant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expression in both spaces. Sex and ideology are significant predictors in real space, while the frequency of online conversation is the significant predictor in cyber space.

Key Word: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Willingness to Expression, Cyberspace